



폭스바겐 소송 확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

채원영 연구원

■ 독일 폭스바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지면서 폭스바겐 주가가 급락하고 미국 및 호주 등 주요국에서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음.¹⁾

- 9월 18일 미 환경보호국(EPA: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량 48만 2,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발표하였음.
- 이에 폭스바겐은 9월 22일 전세계에 판매된 1,100만 대의 차량에 조작장치를 장착했다고 시인함.
-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은 자국 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, 캐나다, 호주, 영국 등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고, 폭스바겐 주가는 10월 2일까지 2주 만에 37% 급락하였음.

■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의 민사집단소송 및 주가 폭락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이 미국, 호주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집단소송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.

- 미국, 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폭스바겐 차량 이용에 따른 피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.
- 또한 미국 Virginia 소재 연방지방법원(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)에 폭스바겐 주식 폭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되어 관련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.
 - 2015년 9월 25일 Virginia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Michigan St. Clair 해안경찰·소방관 퇴직연금 펀드(Shores Police and Fire Retirement System)가 제기한 폭스바겐 미주식예탁증서(ADR: American Depositary Receipt)²⁾ 폭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음.
 - ADR 소유자(미국 거주자에 한함)는 증권집단소송³⁾에 참여할 수 있음.

1) 국제금융센터(2015. 10. 6), “독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장 점검”을 발췌, 요약함.
 2) 해외주식을 미국 내 증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언어·문화 및 주식발행국과의 주식 유통 관련법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법적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음. ADR 수탁은행이 투자 관련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을만한 거래를 대행하여 투자자의 의견에 따라 대신 매수하고 매수한 원주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예탁증서를 발행함.
 3) 증권집단소송제(Securities fraud class)는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·분식회계·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.

- ADR은 폭스바겐 전체 지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, Business Insurance(2015. 9. 28)는 관련 움직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■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 확산과 주요 규제당국의 리콜 조치 등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(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, D&O 보험)과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(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, CGL 보험)⁴⁾의 보험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
-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65억 유로 규모의 총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시장에서는 벌금과 리콜비용, 집단소송 관련 비용을 감안하면 300억 유로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음.
 - 특히, 미국 내에서의 리콜 및 소송비용, 벌금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, 미국 내 벌금은 약 180억 달러, 리콜 및 차량 수리비용은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.
- D&O 보험과 CGL 보험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두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⁵⁾ 보험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 -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등 구체적 경영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CGL 보험에, 임원들에게 추궁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D&O 보험에 가입함.
- Insurance Insider(2015. 9. 28)와 The Times(2015. 10. 1)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 지역의 경우 약 1억 달러, 독일 지역의 경우 약 5억 유로(5억 6,000만 달러) 규모의 D&O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.
 - 미국 지역 D&O 보험의 경우 AIG Group, Ace Group, XL Insurance 등에 분산 계약되어 있음.
 - 독일 지역에서는 Zurich Insurance Group, Allianz, HDI-Gerling, R+V Versicherung 등 약 12개 손해보험회사에 분산 계약되어 있음.
- 금번 폭스바겐 사태와 비슷한 사례로 2006년 Siemens의 뇌물공여 사건이 있으며 이때 Allianz, Zurich Insurance Group, ACE Group, Swiss Re 등은 Siemens와 2억 5,000만 유로 규모의 D&O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양측 합의에 따라 1억 유로만 지급한 사례가 있음.

■ 향후 폭스바겐 사태 수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용은 유로존 및 중국으로의 집단소송 확산 및 판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Zurich Insurance Group 등 글로벌 대형 손해보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(The Times 등)

4) 기업일반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상품, 고객 및 종업원의 신체적 상해, 재산상 피해, 환경오염 등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임.

5) 김영주(2015. 6), "D&O 보험에서의 타보험조항과 방어비용의 분배", 「상사판례연구」 28권 2호, pp. 275~308.